

대웅제약 '나보타' 대만 품목허가 중화권 진출 교두보 마련

하반기 대만 현지 발매 예정
현재 태국·필리핀 등 허가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 사진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가 아시아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최근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TFDA)로부터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만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용시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허가를 통해 아시아 미용성형 시장에서 나보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 나보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에서 발매됐으며, 지난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중 대만 현지에 나보타를 발매할 예정이다. 나보타의 대만 판매는 파트너사 '오리엔트

유로파마'가 맡는다. 오리엔트 유로파마는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 회사로, 미용·성형 관련 분야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및 강력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어 나보타 발매시 시너지가 기대된다.

박성수대웅제약나보타사업본부장은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용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자, 중국 진출을 대비해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허가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나보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보령제약, 美학회서 혁신항암제 효력 발표

암세포 사멸, 종양유발유전자 제어

보령제약은 22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국암학회(AACR) 연례학술대회에서 연구개발 중인 혁신항암제 BR101801의 전임상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제약이 자체개발 중인 BR101801은 PI3K와 DNA-PK를 동시에 저해하는 표적항암제 겸 면역항암제이다. 보령제약은 이번 AACR에서 BR101801의 암세포 사멸과 관련해 단독 및 병용효력, 면역항암제로서의 효력, 암세포 손상복구인자의 저해능력 등 총 세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보령제약은 혈액암에서의 암세포 사멸에 관한 BR101801의 단독 및 병용 효력시험을 진행했고, 길리어드의 '자이델릭', 버라스텐의 '코피카' 등 현재까지 PI3K저해제로 허가받은 약물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시험을 진행

했다. 그 결과 52개 혈액암 세포주에서 비교약물보다 뛰어난 암세포 사멸효과와 c-Myc(종양유발유전자)의 제어 효력을 확인했다.

또 BR101801 단독투여시 면역억제 세포인 Treg(조절T세포)와 MDSC(골수유래 억제세포)를 줄이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면역 세포인 CD8+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이며 면역항암제로서의 효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면역관문억제제(PD-1, PD-L1) 또는 면역관문활성제(OX40)와 병용투여시 시너지 효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암세포의 DNA 손상을 인지하고 수선에 관여하는 효소인 DNA-PK를 저해하는 효과를 보이며 암세포 사멸효능을 보였다. 특히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에서도 세포독성항암제 또는 방사선과 병용투여시 암세포 사멸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삼성물산 패션부문 청량함 살린 '리조트룩'

데일리룩으로 활용 가능

올여름에는 숲, 나뭇잎, 꽃같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패턴이 현실의 답답함을 해소해준다. 큼직한 프린트로 시원하면서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또 계절 분위기를 한껏 반영한 밝고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도 필수적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구호'는 대표 리조트룩으로 열대우림을 연상시키는 시원한 패턴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23일 내놓았다.

구호의 트로피컬 원피스는 청량한 촉감과 은은한 광택을 지닌 폴리 소재로 제작됐다. 튜브 스커트를 함께 착용한 듯한 레이어드 실루엣이 독특하다. 양쪽 측면에는 컬러 블록을 넣어 하체

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더했다. 또 동일한 트로피컬 프린트를 적용한 블라우스도 출시, 쇼트 팬츠와 함께 매치시켜 활동성을 높인 스타일링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시즌 이미지를 실제야가 아닌 이국적인 해변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해 휴양지에 대한 상상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콘셉트를 보여줬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삼성물산 패션부문

'렘시마' 맞고 코로나19 '완치'

셀트리온헬스케어
일주일안에 호흡상태 호전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개선

이탈리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렘시마'를 맞고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회사측은 렘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능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국립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UC)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폐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이어가는 등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궤양성 대장염 상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안 피에로 마네스 소화기내과 부국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팀은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에 쓰이는 인플릭시맙 의약품 '렘시마'를 환자에게 투여했다.

환자는 '렘시마' 처방 이후 일주일 안에 호흡 상태가 좋아졌으며, CT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렘시마

환자의 폐를 정밀 검사한 결과 염증 완화 등 현저한 개선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환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다.

치료를 종괄한 지안피에르 마네스의사는 "이번 치료는 자가면역질환 성인 환자가 인플릭시맙을 투여 받은 뒤 코로나19 완치 뿐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개선된 세계 첫 사례"라면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맙 제제가 자가면역질환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치료 내용을 세계적인 소화기계 의학 저널인 거

트(Gut)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자가면역질환 의약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소속의 마크 웰드만 박사는 지난 4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랜센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TNF- α 억제제 처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웰드만 박사의 논문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조직에는 염증을 증폭시키는 TNF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폐 등에서 염증이 증폭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해 코로나19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에는 TNF를 타겟하는 TNF- α 억제제가 가장 적합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20년이 넘게 처방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인플릭시맙 등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웰드만 박사 및 버밍엄 대학병원 등이 참여한 연구팀 주도로 '렘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스펙트럼 롤론티스 당일투여 효과... 시장 경쟁력 확보

경쟁약품대비 짧은 발현 기간 확인
환자 병원 방문 횟수 줄여 편의 증대

글로벌 호중구감소증치료제 시장에서 롤론티스(사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암학회(AACR)에서, 화학항암요법 치료를 받은 당일 투여한 롤론티스를 투여한 뒤 경쟁약품(페그필그라스티) 대비 호중구감소증의 짧은 발현 기간을 확인한 연구결과(전임상)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향후 롤론티스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결과라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들은 환자들이 화학항암요법(항암제 등) 치료를 받은지 24시간 이후에 투여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들이 호중구감소증 예방치료를 위해 하루 더 입원을 하거나, 병원 방문을 한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펙트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화학항암요법을 받은 당일 롤론티스를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어

서 향후 이 시장의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터 발표된 임상은 화학항암요법으로 유도한 호중구감소증(CIN) 쥐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세 시점 모두에서 롤론티스 투여군의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이 페그필그라스티 투여군 대비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수아 레벨 스펙트럼 CMO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기 유방암 환자의 화학항암요법 치료 당일 다양한 간격을 두고 롤론티스를 투여해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을 평가하는 임상 1상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日 비뇨기치료제 시장진출 초읽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구구' 출시

한미약품의 '구구(성분 타다라필·사진)'가 일본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출시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산도즈는 구구 2.5mg과 5mg 두 용량을 일본 전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도즈는 지난 2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두 용량 제품을 전립선비대증(BPH)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은 타다라필 완제품(구구 2.5mg 및 5mg)을 팔탄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해 산도즈에 공급하며, 산도즈는 이를 최종 패키징한 후 일본 전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다.

일본 타다라필 BPH 전체 시장은 연



간 7400만 정(2019년 IMS 기준)에 달한다. 한미는 일본 BPH 시장의 최대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산도즈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구구는 우수한 제품력과 의료진 및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비뇨기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며 "파트너사인 산도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CJ오쇼핑, '닥터원' '프로틴 실크펩타이드' 출시

CJENM 오쇼핑부문 건강기능식품 PB '닥터원'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틴 실크펩타이드'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실크펩타이드'를 원료로 제작돼 신체 프로틴 밸런스 향상에 도움을 준다.

누에고치의 98%를 차지하는 '실크 단백질'은 라이신,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 8종을 비롯해 아미노산 총 18종을 함유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닥터원' 프로틴 실크펩타이드